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강점인식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양 여 은

2023년 8월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강점인식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김 성 봉

양 여 은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6월

양여은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최보영



위

원

박정환



위

원

김성봉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23년 6월



<국문초록>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강점인식의 매개효과

양 여 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 성 봉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 강점인식,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알아보고, 사회적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강점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학교현장에서 중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교육적 개입과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연구 자료를 제공하여 중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강점인식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본 연구는 온라인 조사로 진행되었으며 모집단은 전국의 중학교 2, 3학년에 재학 중인 중학생 총 415명을 임의 표집으로 조사하였다. 자료수집은 2023년 3월 16일부터 2023년 3월 23일까지 이루어졌으며, 415명 중 불성실한 응답 및 응답시

간을 초과한 7부의 자료를 제외하고 408명의 자료가 회수되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측정도구는 사회적지지 척도, 학교생활적응 척도, 강점인식 척도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시행하였고, 사회적지지, 학교생활적응, 강점인식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값을 산출하였고, 각 변인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사회적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강점인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해 확인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미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적응, 강점인식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적응, 강점인식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강점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강점인식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사회적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강점인식은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두 변인 사이에서 강점인식이 매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위해 학생들이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할 수 있도록 주변 중요 타인들의 긍정적 지지와 자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강점인식의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학교현장 적용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중학생, 사회적지지, 학교생활적응, 강점인식, 매개효과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7
3. 연구모형	8
4. 용어의 정의	9
가. 사회적지지	9
나. 학교생활적응	9
다. 강점인식	9
II. 이론적 배경	11
1. 학교생활적응	11
가. 학교생활적응의 개념	11
나. 학교생활적응의 구성요인	12
다.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	13
2. 사회적지지	15
가. 사회적지지의 개념	15
나. 사회적지지의 구성요인	17
3. 강점인식	18

가. 강점인식의 개념	18
나. 강점인식 관련 선행연구	20
4. 주요 변인과의 관계	21
가. 사회적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21
나. 강점인식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23
다. 사회적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	25
라. 사회적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강점인식의 매개효과	26
III. 연구방법	28
1. 연구대상 및 절차	28
2. 측정도구	29
가. 사회적지지 척도	29
나. 학교생활적응 척도	30
다. 강점인식 척도	31
3. 자료처리 및 분석	32
IV. 연구결과 및 해석	33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33
2.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34
3.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강점인식의 매개효과	36

V. 논의 및 결론	38
1. 논의	38
2. 의의 및 제언	40
VI. 참고문헌	43
Abstract	54
부록	57

표 목 차

표Ⅲ-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9
표Ⅲ-2 사회적지지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30
표Ⅲ-3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31
표Ⅲ-4 강점인식 척도의 신뢰도	31
표Ⅳ-1 사회적지지, 학교생활적응, 강점인식의 기술통계	33
표Ⅳ-2 사회적지지, 학교생활적응, 강점인식의 상관관계	35
표Ⅳ-3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강점인식의 매개효과	36

그림 목 차

그림 I -1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강점인식의 매개모형	8
그림 IV-2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강점인식의 매개효과	3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과도기로 급격한 신체적·정서적 발달과 성장이 일어나며 자아정체성 형성이 시작되어 성인기의 삶까지 영향을 끼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대다수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최나래, 2014), 학교에 입학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를 알게 되는 만큼 적응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경은, 2002). 학교생활적응은 학교환경에서 청소년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물리적, 심리적 환경에 알맞게 자신을 변화시키거나 학교환경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개인과 학교환경 간에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성장, 발전해 나가는 과정(김지현, 2014)이다.

청소년기의 학교는 친구, 교사 등 다양한 인간관계 경험과 사회적 규칙 준수 및 필요한 지식습득을 통해 기술적·지적 역량을 갖추게 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꾸준히 찾아가는 곳이다(정동숙, 소진광, 2017). 또한,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을 통해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할 뿐 아니라 타인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자신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을 경험하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간다(최경옥, 2017).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는 것은 학교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업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와 자신감을 가지며, 친구와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여 조화로운 학교생활을 하고, 학교생활에도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용래, 1993).

그러나, 많은 청소년이 학교생활적응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상 속 많은 변화로 인해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적응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2021, 2022)에서 발표한 교육통계연보에서 학업 중단자 수는 2020년 32,027명, 2021년 42,755명이었다. 이 중 학업 관련, 대인관계, 학교 규칙 등의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자퇴자 수는 2020년

3,090명으로 자퇴자 중 21.8%, 2021년 4,397명으로 자퇴자 중 22.3%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회조사 결과(통계청, 2022)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학교생활만족도 조사 결과는 2018년 58.0%, 2020년 59.3%로 개선되는 추세였으나 2022년 51.1%로 2년 전보다 8.2%p 감소하였다.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전화1388 전화상담 현황에서(EBS 뉴스, 2023.3.24.), 2022년도에는 학교 및 생활 적응과 관련 일탈 및 비행, 학업 및 진로, 대인관계 고민 상담이 전년 대비 약 20% 상승했고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수업 증가와 또래와의 관계 접촉이 줄어들면서 학교 및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청소년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사례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 심화를 유추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학교적응 문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인지적 발달, 동료 및 이성관계, 학업, 진학, 부모로부터 독립 등 여러가지 변화와 문제들이 한꺼번에 부딪치게 되는 시기이며 신체적, 인지적 변화때문에 불안과 갈등이 고조되어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기(하현주, 박원모, 박명숙, 천성문, 2008)이다. 특히, 초기 청소년기인 중학생은 급격한 인지적·신체적 발달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많은 연구자들은 중학생 시기가 학교생활적응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보고 있다(이규미, 2005). 한국교육개발원(2012)은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은 중학생의 중요한 과업이며 개인의 발달 및 사회화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즉, 중학교 시기는 급격한 신체적·심리적·환경적 변화를 겪으며 자아정체감을 형성해가는 출발점으로 이 시기의 건강한 발달은 청소년기 후반부와 성인기 삶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청소년 시기 중 중학생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변인은 크게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으로는 긍정적 자아개념(문은식, 김충희, 2002), 자기효능감(송선미, 2013; 유진이, 2007), 자아탄력성(하현주 등, 2008) 등이 있다. 환경적 변인들은 친구관계(구자은, 2000), 교사관계(김용래, 김태은, 2001), 부모 관계(문은식, 김충희, 2002), 사회적지지(이은경, 2012) 등이 있으며, 이 중 가족, 교사, 친구들로부터 얻는 사회적지지는 학교생활 적응

에 주요한 요소로(최진아, 이숙, 1996)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지지는 청소년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관계망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정동숙, 2018)으로 사회적 욕구 충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발달과정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장윤정, 2013). 사회적지지는 크게 지지유형과 지지원에 따라 분류하는데, 박지원(1985)은 정보적지지, 정서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로 범주화하였고, 한미현(1996)은 사회적지지를 부모의 지지, 친구의 지지, 교사 지지로 구분하였다. 청소년기는 가정과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며 주어진 환경 속 주요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가족, 친구, 교사는 중학생의 주요 사회적 지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지지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게 하고(Seligman, 2002),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Cobb, 1976).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도가 높았으며(김관희, 1997; 문은식, 2005; 이은경, 2012; 최아라, 2017; 하현주 등, 2008), 백성희(2000)는 가족의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적응을 잘하였다. 신혜정과 서영석(2006)의 연구에서 부모지지가 중학생의 적응행동에 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Valentiner와 Moos(1995)는 부모지지가 높은 청소년들이 부모지지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보다 학교적응력이 높다고 하였다. 이창주(2007)는 교사의 지지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문은식과 김충희(2002)는 중·고등학생을 대상 연구에서 학생에 대한 교사의 태도가 지지적일수록 학생들의 학업 동기가 높아지며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Meenus(1994)는 친구 지지가 높으면 학교에서 안정감과 자신감을 갖게 되고, 결국 학생의 심리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청소년들이 친구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구자은, 2000)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부모, 교사, 친구와 같은 주요 타인으로부터 사회적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인식하거나 실제로 지지를 많이 받는 청소년은 학교생활적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지지는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학교생활적응의 중요성으로 인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됐다. 이전 심리학의 연구가 문제행동이나 우울, 부적응 등 부정적인 측면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면, 최근 연구들은 긍정심리학의 입장에서 성격강점과 긍정정서, 긍정행동을 증가시켜 긍정적 발달 및 생활의 적응을 돕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손보영, 2011). 최근 긍정심리학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에서도 강점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이연희, 탁진국, 2019).

강점은 긍정심리학에 기초를 두며 개인의 긍정적 특질인 성격강점을 포함한 개인의 다양한 능력이다. 강점은 누구에게나 있고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조남근, 권정희, 정미예, 2016). 강점인식은 자신의 강점에 대해 자각하고 인지 수준(Govindji, & Linley, 2007)으로, 자신의 강점을 찾아내어 인식하는 것으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김민정, 이희경, 2014). 조재문(2023)은 강점인식은 긍정적 정서를 느끼게 하며 인생의 변화 시기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극복하여 긍정적인 적응에 이르게 한다고 하였다. 경쟁과 학업성취 중심의 학교 교육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한국청소년상담원, 2002), 강점인식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연희, 탁진국(2019)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게 되면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어떤 과업을 수행할 때 잘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이는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또한, 문애경, 진명순, 김여정, 천성문(2017)의 연구에서 중학생이 강점인식을 더 많이 할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더 높다는 점을 밝혔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의 강점인식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개인적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강점인식의 효과성을 입증하였으나, Hill(2001)의 연구에 의하면 2/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강점을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이는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보고하였다. 즉, 강점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사람이 자신의 강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안은경(2017)은 다양한 사회적 제공원으로부터 얻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인 사회적지지는 자신의 강점에 대해 더 잘 인식하게 한다고 하였다. 중학생에게 긍

정적으로 사회적지지가 제공되었을 때 자신에 대한 강점인식이 높아지며(백승훈, 2019),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를 통해 강점인식이 향상(조재문, 2023)되었다. 이를 통해 사회적지지가 청소년의 강점인식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개인적 변인, 환경적 변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다양한 측면에서 학교생활적응에 관련된 변인을 탐색하고 구조적 관계를 이해하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사회적지지는 강점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끼쳤으며, 학교생활적응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마지막으로 강점인식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이를 통해 사회적지지, 강점인식, 학교생활적응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이들 변인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밝힌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최아라(2017)와 최배정(2019)의 연구에서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긍정심리자본을 매개하여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즉,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은 자신의 심리적 자원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강점을 잘 활용하는 등 긍정심리자본 수준이 높아졌고 긍정심리자본 수준이 높아지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최배정, 2019). 최아라(2017)는 긍정심리자본은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 낙관성을 개념화하여 만든 상위 개념으로 자신의 가치 및 심리적 역량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여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더 적응적으로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사회적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이라는 강점인식과 유사한 개념의 매개변인 역할을 살펴보아 강점인식이 사회적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매개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서영석(2010)의 연구에서 매개효과는 예측변인(독립변인)이 매개변인(Mediator)을 통해 준거변인(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으며 매개변인(mediator)은 예측변인과 준거변인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변인이다(Baron & Kenny, 1986; Holmbeck, 1997). 상담심리분야에서 매개효과 검증은, 개입을 통해 발생하고 다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근저의 변화 과정을 파악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의가 있겠다(Mackinnon & Dwyer, 1993). 또한, 매개효과 검증이 상담과정에서 보다 초점을 두고 개입할 변인들을 확인하고 개입 전략을 수립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는 의의가 있겠다(서영석, 2010).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환경적 요인을 사회적지지, 개인적 요인을 강점인식으로 설정하여 이 두 변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사회적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강점인식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사회적지지와 강점인식 증진 기반 상담 개입 및 교육 프로그램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강점인식을 매개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강점인식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가설 1.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강점인식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3. 연구모형

매개효과(Mediational Effects)는 예측변수인 X가 준거변수인 Y에 미치는 효과를 제3의 변수인 M이 매개하는 효과를 일컫는다(Baron & Kenny, 1986).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강점인식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첫째, 1)예측변수와 준거변수, 2) 예측변수와 매개변수, 3) 매개변수와 준거변수 간의 개별적인 관련성을 지지하는 이론 혹은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통합한다(조영일, 김지현, 한우리, 조유정, 2015).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사회적지지와 학교생활적응, 사회적지지와 강점인식, 강점인식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밝혔으며 모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신뢰도가 높은 측정도구를 선택해야 한다. 신뢰도가 낮을 경우 매개효과뿐만 아니라 예측변인의 효과 또한 적절히 추정되지 못하게 된다(서영석, 2010).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강점인식 검사도구는 선행연구들에서 양호한 신뢰도를 갖추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α 계수가 .889로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강점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그림 I-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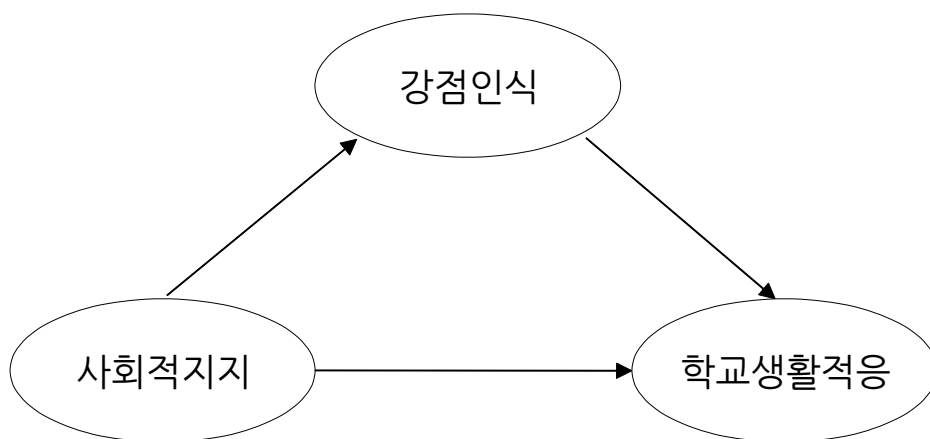


그림 I-1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강점인식의 매개모형

4. 용어의 정의

가.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는 청소년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관계망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이라고 정의(정동숙, 2018)한다. Nolten(1994)은 사회적지지를 부모, 친구, 교사 등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친사회적 행동으로서 개인의 심리적 기능이 강화되고 대인관계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Nolten(1994)의 Student Social Scale을 수정한 장성화(2010)의 척도를 중학생 대상 연구에서 정동숙(2018)이 수정한 사회적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나.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이란 학교환경에서 청소년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물리적, 심리적 환경에 알맞게 자신을 변화시키거나 학교환경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개인과 학교환경 간에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성장,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다(김지현, 2014).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아영(2002)이 개발한 학교생활적응척도(School Adjustment: SA)를 권태우(2015)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다. 강점인식

강점은 긍정적인 특질뿐만 아니라 타고난 능력이나 지식과 기술로 길러진 재능으로 정의(Clifton, Anderson, 2002)하고 강점인식은 Govindji와 Linley(2007)의 정의에 따라 자신이 강점을 인지하고 지각하는 정도와 수준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강점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Govindji와 Linley(2007)이 개발한 강점활용척도(Strengths Use Scale) 중에서 강점인식과 관련된 문항 8개를 탁진국(201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학교생활적응

가. 학교생활적응의 개념

적응이란 개인이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맞추려는 노력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환경을 바꾸려는 노력이다. 인간은 다양한 사회환경에 적응하면서 성장·발달하는 존재이다. 청소년기는 유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로서 가정 이외에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학교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중요한 삶의 장소로 지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한상은, 2012). 청소년은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생활환경에서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성장 발달하는 과정 중 정서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정을 느낀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대다수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최나래, 2014), 청소년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학교생활에서의 바람직한 적응은 학교 이외의 사회생활 전반에 걸친 심리적·사회적 적응을 예측할 수 있게 하며,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김지현, 2014).

국내의 청소년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는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된 1991년을 시점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이연희, 탁진국, 2019). 학교생활적응이란 학교생활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교사 및 친구들과의 관계가 잘 조화되어 만족스러운 상태로 정의된다(교육학대사전, 1981).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해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Spencer(1999)은 학교생활적응을 교육 측면에서 학생의 특성과 학습 환경의 다차원적 성격 및 요구 사이의 적합성을 최대화 시키는데 필요한 학교 순응 혹은 적응의 정도로 정의하

였다. 주현정(1998)은 학교생활 적응을 학생의 행동이 학교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잘 조화되고 성공적 대인관계를 만들어가며 다른 학생, 교사 등의 의미있는 타인들과 학교수업에 적극적이며 학교규범에 순응하여 독립된 개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을 정의하였다.

한편, 최근 학교생활 적응의 연구를 살펴보면 학생의 적극성을 강조한다. Danielsen(2009)은 학교적응을 학교환경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교를 변화시키고, 학교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학교환경과 개인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는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과정이라고 하였다. 김용래(2000)는 지적, 정의적, 도덕적 발달을 위해 학교교육의 과정과 상황에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학습자가 학교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 교육적 환경을 그들 자신의 요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학습자 자신이 학교의 모든 상황, 환경에 바르게 수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문은식(2002)은 학교생활적응을 학교생활과 관련된 학업, 사회, 정의적 측면의 요구에 대한 합리적 만족을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고 조작하는 외현적·내재적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성선진(2010)은 학교생활적응을 개별 학생이 모든 학교환경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나 문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자신의 욕구 충족과 성장을 위해 자신과 학교환경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며 개인과 학교환경 사이에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는 역동적인 상호작용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위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학교생활 적응은 청소년이 자신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학교환경을 변화시키거나 학교환경의 요구에 적극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을 학교환경에서 청소년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물리적, 심리적 환경에 알맞게 자신을 변화시키거나 학교환경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개인과 학교환경 간에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성장, 발전해 나가는 과정(김지현, 2014)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나. 학교생활적응의 구성요인

학교생활적응의 구성요소는 여러 하위영역으로 구분되어 연구되고 있고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병수(1991)는 학교생활 적응의 하위영역으로 담임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규칙준수관계, 학교행사관계, 학습활동으로 구분하였고, 김용래(1993)는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을 학교교사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환경적응, 학교생활적응으로 구분하였으며, 문은식(2002)은 하위영역으로 학업적 적응, 정의적 적응, 사회적 적응으로 구분하였다. 구자은(2000)은 교우관계, 학습활동, 교칙준수, 학교환경으로 구분하였고, 김아영(2002)은 학교적응에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으로 구분하였다. 이규미와 김명식(2008)은 학교생활적응의 구성요소를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의 네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위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요소로 공통적으로 많이 거론되는 것이 교우 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업, 학교생활(질서)이다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하여 중학생과 밀접하게 사회적 관계를 맺는 교사, 친구와 같은 중요한 타인과 학교생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수업, 학교 환경적응과 관련된 규칙 준수를 살펴보는 것이 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 적응의 하위영역을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 수업, 학교 규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청소년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학교생활에서의 바람직한 적응은 학교 이외의 사회생활 전반에 걸친 심리적·사회적 적응을 예측할 수 있게 하며,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김지현, 2014). 정동숙과 소진광(2017)은 청소년기의 학교는 교사, 친구와 다양한 인간관계 경험과 필요한 지식습득, 사회적 규칙 준수를 통해 기술적·지적 역량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곳이라고 설명하였다. 청소년 시기는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 중 정체감 대 역할혼미 시기로 신체적, 정서적으로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지며 자아정체감 형성이 시작되는 단계다. 특히 초기 청소년기의 중학생은 급격한 인지적, 신체적 발달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를 알게 되는 만큼 적응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경은, 2002).

중학교 시기의 건강한 발달은 청소년기 후반부와 나아가 성인기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중학생은 초기 청소년기로 학교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이후의 고등학교와 성인기 생활을 위한 사전 준비 등의 복합적 의미를 띤다(송운용, 곽수란, 2006). 그러므로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은 그들의 중요한 과업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발달과 사회화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2).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크게 개인적 변인과 외적 변인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개인적 변인들을 살펴보면 긍정적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강점인식 등이 있다. 문은식과 김충희(2002)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청소년일수록 학교적응력이 높다고 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은 학교생활적응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송선미, 2013; 유진이, 2007). 또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업적응, 사회적응 등 학교생활 전반에 잘 적응하였다(하현주 등, 2008). 최근 긍정심리학이 대두되며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강점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연희, 탁진국(2019)의 연구에서 청소년이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게 되면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어떤 과업을 수행할 때 잘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이는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학교생활적응의 영향을 미치는 외적 변인들은 또래(친구)관계, 교사관계, 부모관계, 사회적지지 등이 있다. 김용래와 김태은(2001)의 연구에서 학교교사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지지적이며 만족스러울수록, 학교의 분위기가 민주적이고 긍정적일수록 학생들이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들이 친구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였다(구자은, 2000). 또한,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게 한다(문은식, 김충희, 2002). 이은경(2012)의 연구에서 중학생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학교적응의 정도도 높았고, 가족, 교사, 친구들과로부터 얻는 사회적 지지는 학교생활 적응에 주요한 요소로(최진아, 이숙, 1996) 부각 되고 있다.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은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두 변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하는 것이 학교생활적응 향상 방안 모

색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요인으로 강점인식과 사회환경적 요인인 사회적지지를 선정하여 이 두 변인이 전체적으로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사회적지지

가. 사회적지지의 개념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타인과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해 나간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지지는 한 개인이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제공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으로 정의된다. Cobb와 Hoberman(1983)은 사회적지지만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로부터 제공되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으로 정의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1970년대 예방심리학이 대두되며 연구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심리학, 교육학, 예방의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학자가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현재까지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완화, 환경에 대한 적응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연구되고 있다.

사회적지지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obb(1976)는 사회적 지지를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요인으로 자신이 돌봄과 사랑을 받고 가치 있는 존재로 존중받으며 타인과 공동의 의사소통 망에 속해있음을 믿게 해주는 정보라고 정의하였다. Kaplan(1977)은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즉 사랑과 보살핌을 제공하고 개인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해 주는 사람들의 존재 또는 이용가능성으로 정의한다. House(1981)는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표현, 도구적 도움, 정보 및 평가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이 포함된 대인관계로 정의하였다. Dimond(1979)는 사회적 지지란 개인이 대인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효과로 정의하며 정서적 측면 외 다차원적 개념으로 확장하였다. Nolten(1994)은 사회적지지를 부모, 친

구, 교사 등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친사회적 행동으로서 개인의 심리적 기능이 강화되고 대인관계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1980년대 초부터 국내에서도 사회적지지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박지원(1985)은 사회적지지에 대해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들로부터 제공받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도움으로 정의하고 지지원의 특성에 따라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로 4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한미현(1996)은 사회적 지지를 관심, 사랑, 인정, 다른 사람의 도움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자신이 가지 있다고 믿게 하고 문제해결 상황에 잘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정동숙(2018)은 사회적지지를 청소년들이 포함된 사회관계망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이라고 정의한다.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욕구 충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발달과정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장윤정, 2013). 배서영(2017)은 사회적지지만 타인과 유의미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되는 것으로,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도우며 문제해결을 위한 도전을 촉진하고 좌절을 극복하게 해주며,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향상해 주기 때문에 인간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정성인, 1998).

한편, 성인들은 필요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했지만, 청소년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적절한 기술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성인보다 제한된 사회적 지지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추이현, 2002). 즉, 청소년은 학교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며 성인보다 사회적 생활 반경이 제한적이므로 가정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은 청소년 시기 성장과 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적지지의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를 청소년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관계망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이라고 정의(정동숙, 2018)하여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사회적지지는 다른 사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으로서 개인의 발달 및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사회적지지의 구성요인

학자마다 사회적 지지의 구성요인에 대해 다양하게 분류하며 크게 사회적 지지유형과 사회적 지지원으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유형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obb(1976)은 사회적 지지를 존경받고 있고 가치 있다고 믿게 하는 존경 지지, 보호받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정서적 지지, 대화할 수 있고 상호의무가 있는 관계에 속한 구성원임을 깨닫게 해주는 관계망 지지로 분류하였다. House(1981)는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 평가적 지지로 분류하였고, Thoits(1982)는 사회적 지지를 정보, 조언, 책임 있는 도움, 경제적 도움과 같은 도구적 지지와 사랑, 이해, 수용, 자존심 고양과 같은 정서적 지지로 분류하였다. 이 외에도 Cohen과 Hoberman(1983)은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을 물질적지지, 정보적지지, 정서적 지지, 자존감 지지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박지원(1985)은 사회적 지지의 속성을 문제해결, 의사결정, 적응, 위기상황에서 제공되는 충고, 조언 등 개인이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정보적 지지와 공감적 이해, 사랑, 신뢰, 관심, 격려 등과 같이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정서적 지지, 일을 대신에 해주거나 돈이나 물건을 제공하는 등 대상이 도움이 필요할 때 직접 돕는 행위인 물질적 지지, 자기의 행동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등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평가적 지지로 범주화하였다.

한편, Thoits(1986)는 사회적으로 제공받는 지지가 어떤 것이냐 하는 사회적 지지의 내용과 누구에게서 제공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사회적 지지의 절대적인 양만큼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적 지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최아라, 2017). Harter(1985)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구성요인을 친구 지지, 부모 지지, 교사 지지의 3가지로 제시하였다. Dubow와 Ulman(1989)는 가족, 또래, 교사로 분류하였으며 Furman과 Buhrmester(1992)는 사회적지지의 하위유형으로 가족, 친구, 교사 등을 제시하였다. Nolten(1994)는 사회적 지지를 지지 유형에 따라 정서적, 정보적, 도구적, 평가적 지지로 나누며, 또한 지지원에 따라 가족지지, 또래지지, 교사지지로 분류하였다(한미현, 유안진,

1996).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한미현(1996)은 사회적지지를 부모의 지지, 친구의 지지, 교사 지지로 구분하였다. 정성인(1998)은 사회적 지지원의 대상에 따라 부모, 교사, 또래의 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장성화(2010)는 청소년들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등으로 구분하였다. 최선아(2011)는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지지원은 부모, 교사, 또래(친구)의 지지라고 언급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은 사회적 지지유형과 사회적 지지원의 따라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중학교 시기 특성에 따라 가정과 학교에서 부모, 친구, 교사와 같은 주변 인물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주변 인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원에 따라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3. 강점인식

가. 강점인식의 개념

강점인식은 자신의 강점에 대해 자각하고 인지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Govindji, Linley, 2007), 인간의 긍정적 특성에 초점을 둔 긍정심리학에 기반을 둔다. 긍정심리학은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면을 중심으로 연구한 기존 심리학과는 달리 긍정 정서와 강점을 중심으로 인간의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둔 학문이다. Peterson과 Seligman(2004)은 성격적 강점과 덕성에 관한 분류체계 연구로 강점 연구를 시작하였고, 성격강점을 사고, 정서 및 행동에 반영된 긍정적 특질로 정의하며, 성격강점(Character Strengths)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후 성격강점과 심리적 요인 관계 등을 탐색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Rettew와 Lopez(2008/2011)는 강점 발견을 어두운 방안을 탐색하다가 전등을 켜는 것에 비유하며, 자신 안에 존재하는 강점을 발견하면 일상을 더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누구에게나 존재하고 있는 자신의 강점을 찾아내어 인식하는 것은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김민정, 이희경, 2014). 한편, 강점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며 자신의 강점을 아는 것은 개인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많은 사람이 자신의 강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로 지내고 있다고 하였다(Seligman, 2009). Hill(2001)의 연구에 의하면, 자신의 강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1/3밖에 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의 강점을 설명하기 어렵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점은 누구에게나 있고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조남근 등, 2016). 강점을 활용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강점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전문성과 자신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김수립, 2014).

Seligman과 동료들(2005)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강점을 아는 것만으로도 향후 6개월 동안 행복감이 증가하고 우울증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국내 연구에서도 강점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우울을 보고하고 행복과 삶의 만족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김지영, 2011). 자신의 강점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하도록 도왔고(Harter, 1998), 강점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자존감과 자신감이 향상되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임영진, 2010).

한편, Clifton와 Anderson(2002)이 강점을 성격강점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긍정적인 특질뿐만 아니라 타고난 능력이나 지식과 기술로 길러진 재능으로 정의하였다. Linley(2008)는 강점을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끼기 위해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면서, 자신의 강점을 사용하는 사람은 열정과 진정성을 느끼며, 적절한 기능, 발달과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강점인식은 자신의 강점에 대해 자각하고 인지하는 것으로 정의된다(Govindji, Linley, 2007). Govindji와 Linley(2007)는 개인은 누구나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강점을 자각하고 수용함으로써 심리적 안녕감과 활력을 생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관점으로 강점을 이해하며 긍정심리학에서 정의하는 개인의 성격강점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강

점은 긍정적인 특질뿐만 아니라 타고난 능력이나 지식과 기술로 길러진 재능으로 정의(Clifton, Anderson, 2002)하고 강점인식은 Govindji와 Linley(2007)의 정의에 따라 자신이 강점을 인지하고 지각하는 정도와 수준으로 정의한다.

나. 강점인식 관련 선행연구

최근에 긍정심리학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초반에 성격강점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많은 학자가 강점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까지 개인 심리적 요인, 진로, 적응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강점인식이 개인 내적 심리적 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강점인식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졌다(김민영, 2013). Govindji와 Linley의 연구(2007)에서 강점을 더 잘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높은 수준의 유기체적 가치, 자기존중감과 일반적 자기효능감,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활력 수준을 갖는다. 자신의 강점을 더 많이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긍정적인 특성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조남근 등, 2016). 강점을 인식하고 지각하는 것은 긍정정서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해 전반적으로 갖는 주관적 느낌인 자기존중감과 자신의 능력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정도인 자기효능감을 증가하게 만드는 것이다(임인선, 2014). 즉, 강점인식은 개인 내적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주며 긍정적인 자기개념 형성 및 유지를 촉진하는 변인으로서 연구되고 있다.

강점인식이 개인 외부의 환경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Nickerson과 Fishman(2009)의 연구에서 학생들의 강점인식은 학교기능, 적응력 및 사회적 기술 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밝혔다. 강점인식이 높으면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아지고(김애리, 탁진국, 2022), 이지원과 이기학(2017)의 연구에서 자신의 강점을 잘 이해하여 의식하고 있는 대학생들일수록 대학 생활을 영위할 때의 적응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즉, 개인은 자신의 강점을 인식함으로써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고 인생의 변화 시기에서 겪게 되는 역경과 스트레스를 극복하여 긍정적인 적응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조재문, 2023).

김지영(2011)의 연구에서 강점인식 집단이 강점활용 집단의 효과와 유의미한 차이 없이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강점인식은 단일변인으

로서 인간의 내적 변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Joseph과 Linley(2009)는 강점을 알고 계발시키는 것은 개인의 실현경향성을 나타내는 것 볼 수 있으며, 강점은 자신이 누구인지와 같고 각자 자신의 강점을 알고 있으면 실현경향성에 따라 강점을 활용하고자하며, 강점활용은 그 과정을 촉진시킨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하여 강점인식은 개인 내적 심리에 영향을 주어 긍정적 자기개념 형성과 학교생활적응을 촉진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4. 주요 변인과의 관계

가. 사회적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아동기를 지나 초기 청소년인 중학생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가정과 학교에서 보내며, 자신을 둘러싼 중요한 타인들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며 발달 및 성장을 한다. 성인과 달리 중학생은 한정된 자원과 환경으로 인해 부모, 친구, 교사 등을 통해 얻는 사회적 지지가 자신의 자아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사회적 지지는 인간의 기본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통제능력을 형성시켜줌으로써 인간의 건강한 발달 및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정성인, 1998). Pintrich(1999)는 사회적 지지가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학업성취가 높고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자기통제 등을 증진해 학교적응을 잘한다고 하였다. 또한, 조재문(2023)은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지지와 인정을 받는다고 지각한 고등학생은 역경과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며 긍정적 적응과 성장을 이뤄낸다고 하였다.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도가 높았으며(김관희, 1997; 문은식, 2005; 이은경, 2012; 최아라, 2017; 하현주 등, 2008), 최선아(2011)는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지지원은 부모, 교사, 또래(친구)의 지지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Felner, Ginter와 Primavera(1982)는 가족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은 청소년들이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보다 학업 성취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Holahan, Valentiner와 Moos(1995)는 부모지지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학교적응력이 높고, 스트레스 수준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Dubois, Eitel과 Felner(1994)는 부모 자녀 관계와 중·고등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지지적인 부모 자녀 관계는 긍정적인 학습결과를 촉진하고 자녀의 문제행동 발생을 억제하는 간접적 효과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백성희(2000)는 가족의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적응을 잘한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가족의 지지가 모자라면 교사 관계, 교우 관계, 수업 태도, 학교 규칙의 전반적인 면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행동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하였다. 부모는 가장 1차적 집단으로 자녀는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며, 높은 사회적 지지를 얻게 된다(권태우, 2015). 신혜정과 서영석(2006)은 학교 급별로 사회적 지지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학생은 부모지지가, 고등학생은 친구지지와 부모지지가 적응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의 지지는 학교적응도를 높여 우울이 감소하고 학교생활에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박정현, 2013). 청소년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얻게 되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 성장·발달해 나가므로 부모의 지지는 청소년의 발달과 성장에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

교사는 학교에서 청소년을 가장 가까이에서 교우 관계, 학교 수업, 학교 규칙 등 학교생활적응의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이다. Forisha-Kovach(1983)는 교사는 학교를 구성하는 주요체계로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교사의 지지가 학교생활적응을 더욱 강화하고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은 청소년은 교사의 낮은 지지가 학교생활부적응이 더욱 강화된다고 제시하였다. Dubow와 Tisak(1989)은 교사지지를 높게 지각한 학생은 문제행동 빈도가 낮으며 성적도 높다고 하였으며, 교사의 태도가 긍정적이고, 우호적, 지지적, 만족할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계란, 2010). 청소년과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성인인 교사의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학생들의 학습 의욕, 태도, 목적의식이 높아지고 부모의 감독이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교사의 지

지수준이 매개해 학생에게 미치는 부모의 영향 못지않게 교사의 영향력도 중요하다(박진옥, 2008).

청소년들은 가족 또는 교사로부터 얻는 사회적 지지와는 또 다른 성질의 사회적 지지를 교우관계를 통해 제공받는다고 할 수 있다(장성화, 2010). 친구지지는 또래나 친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즐거움, 친밀감, 심리적 안정감, 사회성 발달 등 긍정적 자원을 포함한다(남궁은숙, 신영화, 2011). 또래나 친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즐거움, 친밀감, 심리적 안정감, 사회성 발달 등을 포함한다(홍애순, 2013). Meenus(1994)는 학교 친구의 지지가 높고 도움을 받는 경우 학교에서 자신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Ladd, Kochenderfer와 Coleman(1996)은 친구들의 지지는 청소년의 발달과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친구들로부터 높은 수준의 지지를 받는 청소년들일수록 그렇지 않은 또래에 비해 학교에서 갖게 되는 자신감과 안정감이 충만해지며, 그들의 심리적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이신숙, 2013). 청소년기는 부모에게서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며 친구와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시되며, 친구의 지지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친다. 친구들의 지지를 크게 지각할수록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성숙하며 자아정체감을 높게 인식한다(구자민, 2015; 황윤경, 1995). 문은식(2005)의 연구에서 부모, 교사, 친구 지지 모두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으나 그중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는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를 포함한 사회적지지와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 강점인식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기존 연구들이 청소년의 병리적 · 부정적 특성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청소년의 적응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요인에 초점을 두고 개입해야 한다는 긍정심리학적 접근이 부각되고 있다(최아라, 2017). 이연희와 탁진국

(2019)은 긍정심리학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최근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강점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강점인식은 높은 수준의 성취와 긍정적인 자기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끼치며(김혜경, 2016),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하는 것에 기여한다(Harter, 1998).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격강점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성격강점과 학교적응 간에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이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성격강점은 ‘용기’라고 밝혔다(하미연, 2015).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문애경 등(2017)의 연구에서 강점인식은 학교적응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이는 강점인식을 더 많이 할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연희와 탁진국(2019)은 청소년이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이는 과업을 수행할 때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이는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강점인식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른 나이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격강점이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에서 신현숙(2011)은 학교생활적응이 모든 성격적 강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므로 학생의 성격적 강점을 발견하고 계발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김동현(2006)은 낙관적인 학생이 일반적인 학생에 비해 학교생활에서의 교우 관계와 학습과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성격강점이 발달할수록 적극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한다고도 하였다(박남희, 2013).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지원과 이기학(2017)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대학 생활에 조화롭게 적응하기 위하여 자신의 강점에 대해 잘 인식할수록 대학에서의 적응수준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유숙자(2017)는 강점인식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학업적 실패내성의 매개효과 관한 연구에서, 강점인식과 대학생활적응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강점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적 실패내성이 높아져 대학 생활을 적응을 더욱 잘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강점인식은 또래 관계, 학업성취도, 학습동기, 심리적인 문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돕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다. 사회적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

강점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긍정 특질로 개인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강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이은경(2020)은 언급하였다. 사회적지지는 주변인들로부터 받는 도움으로써 부정적인 영향들로부터 보호하는 효과와 동시에 긍정적인 자원들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다(이세진, 2022). 즉, 사회적지지는 개인의 긍정적 자원을 촉진하게 하여 강점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백승훈, 2019).

사회적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은경과 김유진(2021)은 대학생들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강점인식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와 귀인성향의 조절효과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은 주변으로부터 지지 및 수용을 받는 느낌을 받고 이를 통해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는 수준이 높다는 점을 밝혔다.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 및 강점활용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이세진(2020)은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대학생은 자신의 강점을 더욱 잘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효능감이 커져 강점인식 수준을 높인다는 결과를 밝혔다. 이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강점인식의 선행변인으로 제시하였고, 강점인식은 외부 환경적 변인의 영향을 받는다(백승훈, 2019)는 점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들 대상으로 진행된 안은경(2017)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강점인식을 매개하여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며 부모, 친구, 교사의 지지를 통해 학업적 효능감을 향상하며 이로 인해 자신의 강점을 더욱 크게 인지하게 됨을 밝혔다. 백승훈(2019)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와 성취지향목표, 강점인식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긍정적으로 사회적지지가 제공되었을 때 자신에 대한 강점인식이 높아져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밝혔다. 조재문(2023)의 연구에서 사회적지지와 강점인식 간 관계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를 통해 강점인식이 향상되며, 이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인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정리해보면 청소년은 타인으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지지를 지각하면 자신의 긍정적 자원이 촉진되어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라. 사회적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강점인식의 매개효과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지지, 강점인식, 학교생활적응 관련하여 각각 단일 변인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이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먼저, 사회적지지는 강점인식에 유의한 영향(백승훈, 2019; 안은경, 2017; 이세진, 2020; 이은경, 김유진, 2021; 조재문, 2023)을 끼쳤으며, 학교생활적응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문은식, 2005; 이숙재, 2010; 이은경, 2012; 최아라, 2017; 최배정, 2019). 마지막으로 강점인식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문애경 등, 2017; 이연희, 탁진국, 2019; 조남근 등, 2016)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사회적지지, 강점인식, 학교생활적응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나 사회적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강점인식의 매개효과를 밝힌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유사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최배정(2019)의 연구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긍정심리자본을 매개하여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며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은 자신의 심리적 자원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스스로의 능력과 강점을 잘 활용하는 등 긍정심리자본 수준이 높아졌고 긍정심리자본 수준이 높아지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최배정, 2019). 최아라(2017)는 긍정심리자본을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 낙관성을 개념화하여 만든 상위 개념으로서 긍정적인 심리적 가치 및 역량으로 정의하였으며, 긍정심리자본은 자신의 가치 및 심리적 역량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여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더 적응적으로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아라(2017)와 최배정(2019)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며 사회적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강점인식과 유사 개념인 긍정심리자본의 매개역할을 통해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강점인식의 매개역할을 예측할 수 있다.

서영석(2010)은 매개효과란 예측변인(독립변인)이 매개변인(Mediator)을 통해 준거변인(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함을 설명하였고 매개변인(mediator)은 예측변인과 준거변인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변인이다(Baron & Kenny, 1986; Holmbeck, 1997). 예측변인과 준거변인간에 이미 강한 관계가 존재하고 이러한 관계 이면에 존재하는 심리과정을 탐색하고 싶을 때 매개변인을

설정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다(서영석, 2010). 상담심리분야에서 매개효과 검증은 개입을 통해 발생하고 다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근저의 변화 과정을 파악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의가 있으며(Mackinnon, Dwyer, 1993), 서영석(2010)은 상담과정에서 보다 초점을 두고 개입할 변인을 확인하고 개입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지지와 강점인식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파악하였고 강점인식은 적응에 있어 긍정적인 기제로 작용하며 각각의 변인들은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학교생활적응, 강점인식은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나 세 변인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밝힌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비록 선행연구에서 사회적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강점인식의 매개적 역할에 대하여 규명된 바는 적으나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통해 사회적지지와 학교생활적응 관계에서 강점인식의 매개적 역할을 예측할 수 있다.

중학생은 부모, 친구, 교사 등 자신의 주변 환경으로부터 받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 지원 곧 사회적지지를 지각함으로써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긍정적 자원을 촉진하게 된다. 이는 자신의 강점인식을 향상시켜 자신을 긍정적이며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되어 그 결과 학교생활적응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요인으로서 사회적지지, 개인적 요인으로서 강점인식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강점인식의 매개효과에 대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온라인 리서치 전문기관인 (주)마크로밀 엠브레인(www.embrain.com)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취지, 내용과 절차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 설문 조사가 진행되었다. 설문 시기로 인해 학교생활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1학년을 제외하여 전국의 중학생 2, 3학년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주)마크로밀 엠브레인은 전국 1,682,419명(2023년 5월 기준)의 온라인 조사 패널을 보유한 온라인 리서치 전문기업으로 실명인증, 가입감사 조사, 탈락자 관리, 불성실 응답자 관리 등의 체계화된 조사 패널관리 정책 통해 높은 반응률을 기반으로 다양한 설문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설문 조사는 2023년 3월 16일부터 3월 23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하였고 설문 작성에 소요한 시간은 15분~20분 정도였다. 전국에 거주하는 중학교 2,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415명 중 불성실한 응답 및 응답시간이 초과한 자료를 제외한 408부가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으며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알아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성별과 학년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Ⅲ-1과 같다. 성별에 따른 분포는 남학생 199명(48.8%), 여학생 219명(51.2%)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며, 학년은 2학년이 43명(10.5%), 3학년이 365명(89.5%)으로 나타났다.

표Ⅲ-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408)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199	48.8
	여	219	51.2
학년	2학년	43	10.5
	3학년	365	89.5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강점인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인으로 사회적지지, 종속변인으로 학교생활적응, 매개변인으로 강점인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다음과 같다.

가. 사회적지지 척도

본 연구에서는 Nolten(1994)의 Student Social Scale을 수정한 장성화(2010)의 척도를 정동숙(2018)이 중학생 대상 연구에서 수정한 사회적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전체 27문항으로 구성되었고 하위영역으로 부모, 교사, 친구로 나누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높음을 의미한다. 정동숙(2018)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38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부모지지 .931, 교사지지 .893, 친구지지 .93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지지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35로 나타났으며,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는 표Ⅲ-2와 같다.

표Ⅲ-2 사회적지지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N=408)

하위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부모지지	1, 2, 3, 4, 5, 6, 7, 8, 9	9	.923
교사지지	10, 11, 12, 13, 14, 15, 16, 17, 18	9	.909
친구지지	19, 20, 21, 22, 23, 24, 25, 26, 27	9	.871
전체		27	.935

나. 학교생활적응 척도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숙주(2000)와 조영미(1999)의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근거로 김아영(2002)이 『학업동기 척도 표준화 연구』에서 개발한 학교생활적응 척도(School Adjustment: SA)를 권태우(2015)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영역은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으로 분류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반응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고, 부정적인 문항은 역 채점하여 분석하였다. 권태우(2015)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 는 .84이며, 각 요인의 Cronbach's α 는 교사관계 .78, 교우관계 .52, 학교수업 .72, 학교규칙 .7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 측정 도구의 Cronbach's α =.859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는 표Ⅲ-3과 같다.

표Ⅲ-3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N=408)

하위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교사관계	1, 5, 9, 13, 17	5	.801
교우관계	2, 8, 12, 16, 20*	5	.722
학교수업	3, 7, 10, 14, 18*	5	.680
학교규칙	4, 6, 11, 15, 19	5	.747
전체		20	.859

*역채점문항

다. 강점인식 척도

본 연구에서는 강점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Govindji와 Linley(2007)이 개발한 강점활용척도(Strengths Use Scale) 중에서 강점인식과 관련된 문항 8개를 탁진국(201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의 강점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7점 척도를 사용하여 1점(전혀 아니다)에서 7점(매우 그렇다)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Govindji와 Linley(2007)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강점인식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89로 나타났다.

표Ⅲ-4 강점인식 척도의 신뢰도

(N=408)

사용척도	문항 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강점인식	1, 2*, 3, 4, 5, 6, 7, 8	8	.889
전체		8	.889

*역채점문항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18.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인 사회적지지, 학교생활적응, 강점인식 척도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인 중학생의 사회적지지, 학교생활적응, 강점인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시행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값을 산출하였다.

넷째, 연구대상인 중학생의 사회적지지, 학교생활적응, 강점인식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사회적지지와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에서 강점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위계적 회귀분석연구(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Sobel(1982)이 제안한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본 연구 대상인 중학생의 사회적지지, 학교생활적응, 강점인식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을 시행하였다. 각 변인과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초통계량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IV-1과 같다.

표IV-1 사회적지지, 학교생활적응, 강점인식의 기술통계 (N=408)

변인	구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반응척도
사회적지지	부모지지	3.94	0.76	-0.71	0.27	1-5
	교사지지	3.89	0.70	-0.74	0.58	1-5
	친구지지	3.86	0.65	-0.61	0.37	1-5
	전체	3.90	0.57	-0.46	-0.17	
학교생활적응	교사관계	3.70	0.77	-0.39	-0.27	1-5
	교우관계	3.80	0.75	-0.53	0.32	1-5
	학교수업	3.21	0.70	-0.19	-0.50	1-5
	학교규칙	3.92	0.69	-0.61	0.23	1-5
	전체	3.66	0.54	-0.14	-0.37	
강점인식		4.53	1.24	-0.41	-0.56	1-7

중학생의 사회적지지의 평균값은 3.90점(표준편차:0.57)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에 해당하는 하위요인은 부모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이다. 각 하위요인의 5점 척도상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부모지지 관련(M=3.94), 교사지지 관련(M=3.89), 친구지지 관련(M=3.86)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들 값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지각하는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의 평균값은 3.66점(표준편차:0.54)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에 해당하는 하위요인은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이다. 각 하위요인의 5점 척도상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교사관계 관련(M=3.70), 교우관

계 관련(M=3.80), 학교수업 관련(M=3.21), 학교규칙 관련(M=3.92)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들 값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학교생활적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중학생의 강점인식 평균값은 4.53(표준편차:1.24)으로 나타났고 점수가 높을수록 강점인식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line(2005)은 변인의 정규성 충족 여부는 왜도와 첨도의 값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왜도의 절대값이 3 미만이고, 첨도의 절대값이 7 미만이면 정규분포를 가정한다고 밝혔다. 본 연구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사회적지지, 학교생활적응, 강점인식 척도의 왜도와 첨도는 정규성 기준 범위 내에 분포하여, 주요 변인은 정규성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2.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중학생의 사회적지지, 학교생활적응, 강점인식 간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IV-2와 같다. 상관분석 결과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학교생활적응, 강점인식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1$).

사회적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r=.623, p<.001$)를 나타냈으며, 사회적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을 구성하는 모든 하위영역 간에도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사회적지지 지각이 높은 중학생일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지지와 강점인식 간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사회적지지와 강점인식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327, p<.001$). 사회적지지의 모든 하위요인과 강점인식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부모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 지각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강점인식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강점인식과 학교생활적응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r=.437, p<.001$). 강점인식과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요인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강점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표IV-2 사회적지지, 학교생활적응, 강점인식의 상관관계

(N=408)

변인	1	1-1	1-2	1-3	2	2-1	2-2	2-3	2-4	3
1. 사회적지지	1									
1-1. 부모지지	.794***	1								
1-2. 교사지지	.828***	.445***	1							
1-3. 친구지지	.815***	.444***	.584***	1						
2. 학교생활적응	.623***	.322***	.572***	.647***	1					
2-1. 교사관계	.487***	.224***	.525***	.454***	.822***	1				
2-2. 교우관계	.504***	.272***	.330***	.654***	.687***	.470***	1			
2-3. 학교수업	.440***	.276***	.431***	.373***	.767***	.528***	.311***	1		
2-4. 학교규칙	.420***	.186***	.417***	.439***	.701***	.422***	.235***	.466***	1	
3. 강점인식	.327***	.279***	.192***	.328***	.437***	.329***	.392***	.401***	.174***	1

*** $p < .001$

3.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강점인식의 매개효과

본 연구 대상인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에서 강점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가 제안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IV-3에 제시하였다.

표IV-3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강점인식의 매개효과 (N=408)

단계	변수	B	SE	β	t	R^2 (ΔR^2)	F
1	사회적지지 → 강점인식	.710	.102	.327	6.970***	.107 (.105)	48.574***
2	사회적지지 → 학교생활적응	.590	.037	.623	16.029***	.388 (.386)	256.926***
3	사회적지지 → 학교생활적응 강점인식 → 학교생활적응	.509 .114	.037 .017	.537 .261	13.757*** 6.688***	.448 (.446)	164.659***
공차=.893/VIF 지수=1.120							
Sobel 통계량		X→M: B(a)=.710, 표준오차SE(a)=.102					
Z=4.829***		M→Y: B(b)=.114, 표준오차SE(b)=.017					

*** $p < .001$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사회적지지와 매개변인인 강점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사회적지지는 강점인식을 약 10.7% 설명하며,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beta=.327$, $p < .001$).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사회적지지가 종속변인인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사회적지지는 학교생활적응을 약 38.8% 설명하며,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beta=.623$, $p < .001$).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사회적지지와 매개변인인 강점인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강점인식이 추가로 투입됨으로써 설명력이 38.8%에서 44.8%로 증가하였고, 사회적지지($\beta=.537, p<.001$)와 강점인식($\beta=.261, p<.001$)이 모두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사회적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2단계에서보다 감소하여($\beta=.623 \rightarrow .537$) 강점인식은 사회적지지와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에서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지지가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강점인식을 매개변수로 하여 간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회귀분석의 가정에 충족함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공선성 문제를 점검하였다. 3단계의 공차(TOL)는 .893이므로 0.1 이상이며, VIF는 1.120이므로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지지와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에서 강점인식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고자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Z 의 절댓값이 1.96보다 크면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Z=4.829(p<.001)$ 로 나타나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사회적지지와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에서 강점인식의 부분매개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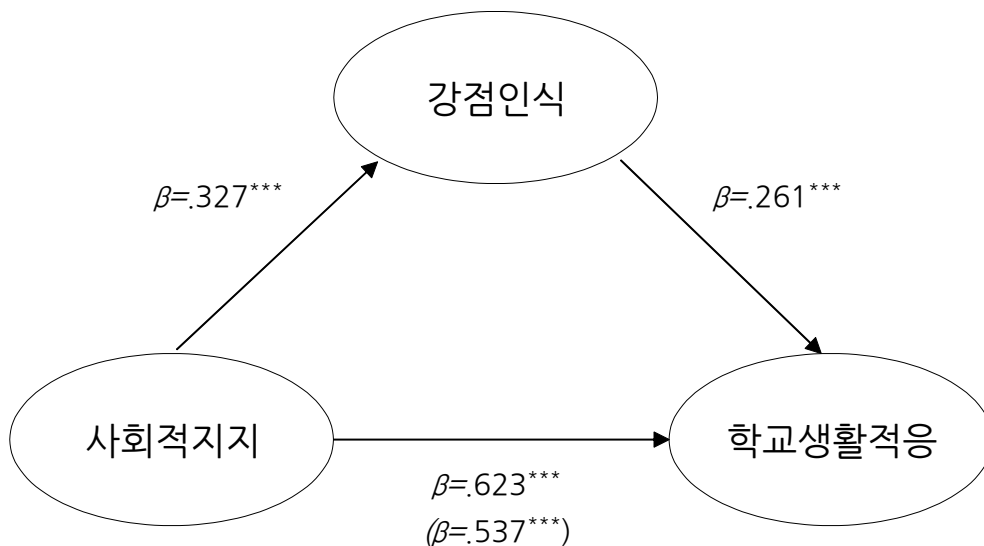


그림 IV-1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강점인식의 매개효과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전국에 있는 중학생 2, 3학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강점인식의 영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중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적응, 강점인식의 관계에 대해 이해와 강점인식의 매개효과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지지 뿐만 아니라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서 강점인식의 영향력을 확인하여 학교 상담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방안 마련에 도움을 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적응, 강점인식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강점인식, 학교생활적응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먼저, 사회적 지지는 학교생활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는 사회적 지지 지각 수준이 높을수록 중학생이 학교생활적응에 더 적응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정적 상관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문은식, 2005; 이숙재, 2010; 이은경, 2012; 최아라, 2017)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로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부모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 모두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쳤으며, 선행연구(구자은, 2000; 문은식, 2005; 신혜정, 서영석, 2006; 이창주, 2007)의 결과를 지지한다. 이 결과는 중학생이 부모, 교사, 친구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지지원으로부터 받는 긍정적 지지가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 지각 수준을 높임으로써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향상하는 방안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사회적지지는 강점인식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이는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는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사회적지지와 강점인식의 정적 상관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백승훈, 2019; 안은경, 2017; 이세진, 2020; 이은경, 김유진, 2021; 조재문, 2023)의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로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 모두 강점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사람은 누구나 강점이 있으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강점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긍정적 지지와 도움이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중학생을 둘러싼 주요한 타인으로부터 받는 긍정적 자원인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것은 자신의 강점인식 수준을 향상해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강점인식과 학교생활적응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이는 중학생이 자신의 강점에 대해 인식을 잘할수록 학교생활적응에 더 잘 적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과업 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이연희와 탁진국(2019)의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대학생의 강점인식과 대학생활적응 관계의 정적 상관관계를 밝힌 선행연구(유숙자, 2017; 이지원, 이기학, 2017)의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이는 강점인식이 학교생활 적응 향상에 영향을 주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중학생의 사회적지지, 학교생활적응, 강점인식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결과,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강점인식은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강점인식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는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 친구, 교사의 긍정적 지지와 도움이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중학생의 강점인식과 학교생활적응을 향상하기 위해서 사회적지지가 중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지지는 강점인식을 매개로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사회적지지와 강점인식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중학생의 지각된 사회적지지는 자신을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신의 긍정적 자원을 촉진하여 자신의 성격강점과 능력인 강점을 잘 인식하게 하여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기개념 형성 촉진 및 자기효능감을 높여주어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한 청소년들이 자신의 심리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강점과 능력을 잘 활용하는 등 긍정심리자본 수준이 높으며, 이를 토대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고 보고한 최아라(2017)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를 통해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사회적지지, 강점인식의 구조적 관계가 확인되었다.

셋째, 중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강점인식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은 강점인식이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환경이라는 외부적 요인 사회적지지도 중요하지만, 스스로가 자신의 강점을 알고 인식하는 정도인 강점인식이라는 개인적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중학생이 자신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강점인식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 및 상담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의의 및 제언

본 연구 결과가 갖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사회적지지와 강점인식, 강점인식과 학교생활적응, 사회적지지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단편적 관계를 다루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세 변인의 유기적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강점인식이 부분매개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이해하는 틀을 제공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사회적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이 과정에서 강점인식이

부분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강점인식이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사회적지지 지각은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직접적으로 돕고, 중학생이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하면 개인의 강점인식 정도가 향상됨에 따라 학교생활에 더욱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에게 사회적지지와 강점인식이 자신을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신의 긍정적 자원을 촉진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 향상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 도모를 위한 교육 및 상담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한 중학생은 강점인식 수준이 높아 학교생활적응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사회환경적 요인인 사회적지지와 개인적 요인인 강점인식을 함께 고려할 때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현장에서는 중학생이 주요 타인의 사회적지지를 잘 지각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및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지원 별 중학생의 강점인식을 도울 수 있도록 강점 기반 긍정적 피드백과 같은 강점인식 관련 지지도 함께 제시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부모 및 교사 대상 교육과 상담에 활용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강점인식이 중학생의 사회적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결과를 통해 사회적지지 지각 수준이 높은 중학생은 자신이 가진 강점을 더욱 잘 인식하여 학교생활적응에 더욱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학생의 개인 강점을 발견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강점 검사, 강점 카드를 활용한 강점발견, 강점 코칭 등 각 개인의 강점인식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3월에 조사를 진행하여 학교생활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중학교 1학년이 제외하고 중학교 2, 3학년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 결과를 중

학생 전체로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1학년을 포함한 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표집을 확장하여 연구를 진행되면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변인 간 상관관계와 매개효과에 주목하여 조사 대상의 성별, 학년 또는 지역에 따른 결과와 유의미한 차이는 입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성별과 학년, 특정 지역 등에 따른 비교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연구대상을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확대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지지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증명한 다양한 연구가 있지만, 강점인식 외에도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다양한 변인이 존재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강점인식 외에도 다양한 차원들의 변인들을 고려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보호 요인의 탐색이 요구된다. 강점 관련 연구에서 강점인식은 인지적 측면이라면 강점활용은 행동적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 Govindji와 Linely(2007)의 연구에서 강점인식과 강점활용의 관계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으나, 이정순(2011)의 연구에서는 두 변인 간 관계가 유의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Buckingham(2007)은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의 강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강점에 대한 인식을 더 많이 할수록 강점활용을 더 많이 하게 되어서 학교적응 수준이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문애경 등, 2017)하였다. 이에 따라 후속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강점인식과 강점활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척도는 자기보고식 설문지이기 때문에 설문 대상자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고자 하거나 방어적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측정 방법을 보완할 수 있도록 면담, 행동 관찰 등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방식으로 측정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VI. 참고문헌

- 고경은(2002). 빈곤아동이 지각한 가족기능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1).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 _____ (2022).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 교육학 대사전 편찬위원회(1981). **교육학 대사전**. 대한교육연합회.
- 구자민(201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또래지지에 따른 학교폭력 가·피해경험의 차이**.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자은(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 적응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미영, 원복연(2018).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또래관계가 지니는 조절효과 검증: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54, 5-37.
- 권태우(2015). **중학생의 가족기능,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및 학교생활적응간의 구조관계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금지현, 손찬희, 채수은, 강성국(2013).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가정 및 개인 관련 변인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0(2), 119-143.
- 김관희(1997).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현(2006). **아동의 낙관성과 학습동기와의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영(2013). **강점중심집단프로그램이 이혼가정 아동의 자기인식과 레질리언스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이희경(2014). 대학생의 강점인식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강점활용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5), 1811-1830.

- 김수림(2015). **청소년의 강점인식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강점활용의 매개효과**.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영(2002). 학업동기척도 표준화 연구. **교육평가연구**, 15(1), 157-184.
- 김애리, 탁진국(2022). 대학생의 강점인식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자존감과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연구. **청소년학연구**, 29(8), 247-271.
- 김용래(1993). **학업성적에 대한 기여변인의 영향력 분석**.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0). 학교학습동기(A)와 학교적응척도(B)의 타당화 및 두 척도 변인간의 관계분석. **교육연구논총**, 17.
- 김용래, 김태은(2001). 학업·비학업 자아개념, 학교태도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 탐색. **교육연구총론**
- 김지연(2022).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2011). **성격강점이 긍정적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영, 권석만 (2013). 성격강점의 인식과 활용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4). 783-802.
- 김지현(2014).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내현적 자기애,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관계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경(2016). **강점 인식이 강점 활용에 미치는 영향 : 긍정 정서와 희망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궁은숙, 신영화(2011).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아동복지학**, 34, 29-62.
- 류재한(2015). **강점 찾기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학업 성취목표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애경, 진명순, 김여정, 천성문(2017). 중학생의 강점인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강점활용과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 **인문학논총**, 45, 199-231.
- 문은식(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관련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2005). 중·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9(4), 1087-1108.
- 문은식, 김충희(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교육심리연구소**, 16(2), 219-241.
- 민병수(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계란(2010).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남희(2013). **초등학생의 성격강점이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현(2013).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지지, 부모감독, 친구지지의 중재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진옥(2008). **아동이 지각한 교사지지 및 교사신뢰와 학습동기간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서영(2017).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0): 113-140.
- 백민지(2017).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강도의 매개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성희(2000). **가족지지 및 인성특성과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승훈(2019). **중학생의 성취지향목표가 강점인식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은의(2020). **중학생이 지각한 학업성취압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영석(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 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성선진(2010).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관련요인의 인과적 관계 분석**.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보영(2011). **초등학생의 성격 강점 발달이 학업성적 및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선미(2013). **청소년의 외모만족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6(1), 1-12
- 송운용, 광수란(2006).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체계 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8(3), 107-129.
- 송현심, 성승연(2015). **사회적 지지가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자기조절의 매개효과**. **상담 및 심리치료**, 27(1), 129-157.
- 신현숙(2011). **초등학생의 성격적 강점 및 주관적 행복감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혜정, 서영석(2006). **아동, 청소년 상담 : 청소년의 학교 급별(초, 중, 고)에 따른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및 적응 간의 구조모형 분석**. **상담학연구**, 7(1), 117-130.
- 안선영(2018). **중학생의 외모만족도와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은경(2017). **사회적 지지가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업적 실패내성에 미치는 영향 : 강점인식의 매개효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숙자(2018). **강점인식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학업적 실패내성의 매개효과**.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진이(2007). **학교동아리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학술대회**. 129-144
- 이규미(2005). **중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83-398.
- 이규미, 김명식(2008). **중학생 학교적응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학교**, 5(1), 27-40.
- 이미라(2001).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지지체계에 관한 연구**. 대구

-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세진(2020).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강점 활용에 미치는 영향 : 강점 인식과 강점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재(2010). **고등학생들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역기능적 신념 및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신숙(2013).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이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아람(2016). **중학생용 사회적 지지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희, 탁진국(2019). 청소년 강점인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계획된 행동이론을 기반으로. **청소년학연구**, 26(6), 165-192.
- 이은경(2012). **중학생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와 학교적응의 관계**.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2020).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 : 자기수용의 매개 효과와 내적 귀인성향의 조절 효과**.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 김유진(2021).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 : 자기수용의 매개 효과와 내적 귀인성향의 조절 효과**. **한국청소년연구**, 32(3), 179-207.
- 이정순(2011). **강점 인식, 태도 및 활용과 다차원적 완벽주의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원, 이기학(2017). **대학생의 강점인식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강점활용과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1), 205-228.
- 이창주(2007). **스트레스와 학교부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낙관성의 역할**.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진(2019). **초등교사의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 마음챙김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영진(2010). **성격강점과 긍정 심리치료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인선(2014). **초등학생의 성격강점 지각이 주관적 행복감과 진로 의식성숙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성화(2010). **대안학교 학생들이 인식하는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자기 효능감 및 학교적응의 인과적 구조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정임, 김성봉(2015).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과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3(2), 447-466.
- 장효진, 임정하(2010).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희망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2(1), 67-78.
- 장윤정(2013).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우울, 공격이 자립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동숙(2018).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 사회적 지지, 사회적 자본과 학교 부적응**.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동숙, 소진광(2017).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 사회적 자본, 긍정심리자본의 학교 부적응에 대한 영향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1), 905-926.
- 정성인(1998). **아동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 및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남근, 권정희, 정미예(2016). 강점인식이 심리적 안녕감과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 강점활용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3), 1-27.
- 조영일, 김지현, 한우리, 조유정(2015). 임상연구에서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의 비교 및 통합: 개념 정의 및 통계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4(4), 1113-1131.
- 조재문(2023).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강점 인식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현정(1998).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옥(2017).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참여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9(3), 231-261.
- 최나래(201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적 양육과 청소년의 공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배정(2019).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긍정 심리자본의 매개효과**.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선아(201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적 양육과 청소년의 공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아라(2017). **청소년의 기질과 사회적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진아, 이숙(1996). 아동의 사회적 지지지각 및 만족도와 적응능력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1-12.
- 추이현(2002). **사회적지지 및 자아존중감이 중학생의 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20). **2020 사회조사결과**, 통계청.
- _____ (2022). **2022 사회조사결과**, 통계청.
- 하미연(2015). **중학생의 성격강점이 심리적안녕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현주(2007).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현주, 박원모, 박명숙, 천성문(2008).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포럼**, 7(1), 1-19.
- 한국교육개발원(2012). **학생의 학교 부적응 진단과 대책 I**.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청소년상담원(2002). **학업중단 청소년 사회적응을 위한 지역단위 관련 기관 연계협력체제 구축방안**.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미현, 유안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한국아동학회지**, 17(1), 173-188.
- 한상은(2012). **고등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애순(2013).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적응이 학교행복감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 황윤경(1995). 청소년 또래집단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심리 사회적 성숙도와
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uckingham, M.(2007). *Go Put Your Strengths*. New York: Free Press.
- Clifton, D. O., & Anderson, E.(2002). *StrengthsQuest: Discover and develop
your strengths in academics, career, and beyond*. Washington, DC:
The Gallup Organization.
- Cobb, S.(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metric
Medicine*, 38(5), 300-314.
- Cohen, S. & Hoberman, H. M.(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as buffers of
lif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Danielsen, A. G.(2009). School related social support and student's perceived
lif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02(4), 303-318.
- Dimond, M.(1979).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to chronic illness: the case of
maintenance hemodialysis. *Research in nursing & health*. 2(3). 101-108.
- Dubois, D. L., Eitel, S. K., & Felner, R. D.(1994).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on schoo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2), 405-414.
- Dubow, E. F., & Tisak, J.(1989).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Child Development*, 60,
1412-1413.
- Dubow, E. F., & Ulman, D. G.(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52-64.
- Felner, R. D., Ginter, M., & Primavera, J.(1982). Primary prevention during school transition: School support and environmentstructur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0*, 277-290.
- Forisha-Kovach, B.(1983). *The Experience of Adolescence*. Scott, Foresman and Company.
- Furman, W., & Buhrmester, D.(1992).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 103-115.
- Govindji, R., & Linley, P. A.(2007). Strengths use, self concordance and well-being: Implications for strengths coaching and coaching psychologists. *International Coaching Psychology Review, 2*(2), 143-153.
- Harter, S.(1985).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Revision of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olorado: Colorado University of Denver.
- Harter, J. K.(1998). *Gage Park High School research study*. Princeton, NJ: The Gallup Organization.
- Hill, J.(2001). How well do we know our strengths? Paper presented at The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Centenary Conference* (April), Glasgow, Scotland
- Hollahan, C. J., Valentiner, D. P., & Moos, R. H.(1995). Parental support, coping strategie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n integrative model with late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6), 633-648.
- Holmbeck, G. N.(1997). Toward terminological,conceptual, and statistical clarity in the study of mediators and moderators: Examples from the child-clinical and pediatric psychology literatur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 599-610.
- House, J. S.(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Massachusetts:

- Addison-Wesley Publishing.
- Kaplan, B. H., Cassel, J. C., & Gore, S.(1977). Social Support and Health. *Medical Care*, 15(5), 47-58.
- Kline, R. B.(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58, 1168-1189.
- Linley, P. A.(2008). *Average to A. Realising strengths in yourself and others*. Coventry, UK: CAPP Press.
- Linley, P. A., Joseph, S., Maltby, J., Harrington, S., & Wood, A. M.(2009). *Positive psychology applic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 MacKinnon, D. P., & Dwyer, J. H.(1993). Estimating mediated effects in prevention studies. *Evaluating Review*, 17, 144-158.
- Meenus, W.(1994). *Psycho social problems and social support in adolescence*. In Nestmann & Hurrelmann (Eds.), *Social network and social support in childhood and adolescent*. New York: de Gruyter.
- Nickerson, A. B., & Fishman, C.(2009). Convergent and divergent validity of the devereux student strengths assess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Quarterly*, 24, 48 - 59.
- Nolten, P. W.(1994).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social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student social support scal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Peterson, C., & Seligman, M. E.(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Pintrich, P. R.(1999). The role of motivation in promoting and sustaining self-regulated lear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1(6), 459-470.
- Rettew, J. G., & Lopez, S. J.(2011). *인간의 강점 발견하기 Discovering Human*

Strengths.(권석만, 정지현 역). 학지사.

Seligman, M. E. P.(2002). Positive psychology, positive prevention, and positive therapy In C. R. Snyder & S. J . Lopez (Eds.) ,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Seligman, M. E. P., Steen, T. A., Park, N. S., & Peterson, C.(2005). Positive psychology progress empirical validation of interventions. *American Psychologist*, 60(5), 410-421.

Seligman, M. E. P., Emst, R. M., Gillham, J., Reivich, K., & Linkins, M.(2009). Positive education: Positive psychology and classroom interventions. *Oxford Review of Education*, 35(3), 293-311.

Seligman, M. E. P.(2014).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 개정판*(김인자, 우문식 옮김). 물푸레.

Sobel, M. E.(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Spencer, M. B.(1999).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 on school adjustment: The application of an identify-focused cultural ecological perspective. *Educational Psychologist*, 34(1), 43-57.

Thoits, P. A.(1982).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in studying social support as a buffer against life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3(2), 145 - 159.

Thoits, P. A.(1986). Social support as coping assista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4), 416-423.

EBS 뉴스(2023.3.24.). <뉴스브릿지> "학교 가기 무서워요"...'새 학기 증후군' 극복 방법은?.

https://news.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60331972/H?eduNewsYn=N&newsFldDetlCd=CORNER_19 (접속일 : 2023.4.15.).

(주)마크로밀 엠브레인. <https://www.embrain.com> (접속일 : 2023.5.18.).

<Abstract>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ir School Adjustment:
The Mediating Effect of Strength Knowledge

Yang Yeo Eun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ung-Bong

This study explored the relationship among strength knowledge, school adjustment, and social support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Additionally, it sought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trength knowledg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school adjustment. Through this, the study aimed to provide foundational research data for educational interventions and program development to improve middle school students' school adjustment. Ultimately, the goal of this study was the healthy growth and develop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To achieve these research

objective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 was formulated.

Question 1: Does strength knowledge have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adjustment and social support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and the target population consisted of a total of 415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2nd and 3rd grades from middle schools across the country. The participants were selected with random sampling. Data collection occurred from March 16, 2023, to March 23, 2023. Among the 415 participants, data from 7 individuals with incompleteness or exceeding response times were excluded, resulting in a final sample of 408 participants for data analysis. The measurement tools used in this study included a social support scale, a school adjustment scale, a strength knowledge scale,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rvey questions.

The collected data in this study were analyzed by using the statistical analysis program SPSS 18.0. To examine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a frequency analysis was conducted. Reliability analysis was performed to validate the social support, school adjustment, and strength knowledge scales. Mean, standard deviation, skewness, and kurtosis were calculated to examine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variables.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A three-step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ollowing the method proposed by Baron and Kenny (1986),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strength knowledg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school adjustment. Additionally,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was tested using the Sobel test. Based on these analy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orrelation analysis among social support, school adjustment, and strength knowledge reveal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This indicates that all three variables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each other.

Second, to test the mediating effect of strength knowledg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school adjustment,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he results showed that strength knowledge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school adjustment.

In summary, the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at strength knowledge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school adjustment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It was observed that strength knowledge acts as an intervening variable between these two variabl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efforts should be made to increase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social support by providing positive support and resources from significant others in order to enhance their school adjustment. Additionally, it highlights the need for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hat promote strength knowledge and facilitation of school adjustment on site.

key words: Social Support, Middle school student, Strength Knowledge, School Adjustment, Mediating Effect

설문지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중학생의 사회적지지, 강점인식, 학교생활적응에 관해 평소 여러분의 생각이나 행동이 어떤지 관해 알아보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각 질문은 정답이 있거나 좋고 나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평소 자신의 모습에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에 대한 귀하의 응답은 오로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3.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석사과정
지도교수 : 김성봉
연구자 : 양여은
yomanjean13@naver.com

-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O표 해주십시오.

1. 당신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당신의 학년은?
① 2학년 ② 3학년

1. 사회적지지 설문지

■ 다음은 여러분들이 느낀 사회적지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평소 자신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O표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부모님은 내가 결정을 못 내리고 망설일 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부모님은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부모님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부모님은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부모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돈이나 물건을 최선을 다해 마련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부모님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부모님은 내가 부모님에게 필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부모님은 내가 잘한 일에 칭찬을 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선생님은 내가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의 선생님은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신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선생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선생님은 어떤 일에 대해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선생님은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의 선생님은 나의 일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의 선생님은 나의 목표와 관심 분야에 대해 함께 얘기하는 시간을 마련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의 선생님은 내가 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칭찬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의 선생님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거나 잘했을 때 나를 칭찬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의 친구들은 내가 기분이 나쁠 때 나의 기분을 이해해주고 기분을 환기 시켜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의 친구들은 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1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 때도 나의 친구들은 나의 곁에 있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의 친구들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의 친구들은 내가 혼란스러워하는 것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의 친구들은 내가 아플 때 나의 일을 대신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의 친구들은 자신의 것을 나와 함께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의 친구들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준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의 친구들은 내가 어떤 일을 잘했을 때 기분 좋은 말을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 학교생활적응 설문지

■ 다음은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평소 자신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O표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선생님들과 자유로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활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학교생활 중 수업시간이 가장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당번활동을 열심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선생님을 길에서 뵈면 반가워서 달려가 인사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휴지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8	학교에서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9	선생님들은 나를 귀엽게 여기신다.	①	②	③	④	⑤
10	수업시간에 배우는 것들은 흥미 있는 것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학교의 시설물을 조심해서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학급에서 친구들과 간에 인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선생님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14	수업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화장실이나 수도를 사용할 때 질서를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 줄 친구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와 선생님과의 관계는 원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수업시간에 딴 생각을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등교시간을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강점인식 설문지

■ 다음은 여러분의 강점에 대한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평소 자신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O표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상당 히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 통 이다	약간 그렇다	상당 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른 사람들이 나의 강점을 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생각을 많이 해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내 강점을 인식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내 강점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언제가 내 최선의 상태인지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빠진 문항이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설문에 성실하게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